

안철수 “尹인선서 조언 바랐으나 그런 과정 없었다”

“사퇴”이태규 의지 워낙 굳어...인수위 복귀 안 할 듯 “2차 내각 인선, 도덕성·개혁성·전문성·리더십 중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초대 내각 인선 발표에 대해 “인선 과정에서 특히 제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과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청 종합상황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정부 내각 인선에 안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안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인사 기준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도덕성이 있고 또 개혁 의지가 있고 이를 이룰만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번엔 인선된 분들이 제가 그리는 이 새 정부에 청사진에 제대로 잘 맞게 제대로 실행에 옮기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3월 3일에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공동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공동으로 정권을 인수하고 공동으로 정권을 운영하겠

다고 그렇게 대국민약속을 했다”며 “제가 인수위원장을 맡은 이유도 함께 새 정부의 청사진을 제대로 그려가는 것이 첫 단추가 중요하듯 아주 중요한 일이지가 제가 그 일을 맡아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적합한 그 청사진을 제대로 실행에 옮길만한 능력 있는 분들을 또 추천도 해드렸다”며 “그렇지만 인사는 당선인의 몫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인수위원직을 사퇴한 데에 이같은 상황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 의원과 얘기한 것이 있느냐’는 물음엔 “이 의원이 먼저 제게 사퇴 의사를 밝혀와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며 “이 의원이 이 많은 대선 과정, 후보 단일화 과정, 또 인수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는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많았던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제 본인이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뜻을 제게 전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견디기 힘든 점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그건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 의원의 인수위 복귀 가능성’에 대해선 “글쎄요 그것은 본인의 마음에 달린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 의원의 복귀 설득 계획’에 대해서도 “처음 의사를 밝혔을 때 여러가지 이 과정에서 의 어려움, 그리고 또 중앙감에 대해 제게 얘기했고 저 나름대로 설득을 했지만 이제 본인이 의지가 워낙 굳었다”고 말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전날 한 시간 가량 나눈 이야기에 이 의원 사퇴 등이 포함됐느냐’는 질문에 “그 때는 이 의원이 사임 의사를 밝히기 전이었다”고 답했다.

장 실장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선 “인수위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었다”며 “인수위 일정이란지 그런 부분들이었다”며 “인수위원으로서 반드시 시한에 맞춰 새 정부가 새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국정 과제들을 선정하고 그 청사진을 잘 그리겠다는 그런 의의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인수위원직 사퇴로 인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대해선 “합당은 지금 당 사무총



장을 포함해 당직자들에게 사실은 맡겨 놓은 상태”라며 “이제 추이를 지켜봐야겠다”고 했다. 급중 예정된 2차 내각 인선 발표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인재의 기준이 있지 않나. 사실은 인재가 누구 편이나 누구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을 위해 정말 그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고 도덕성이 있고, 또 개혁성과 함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대한민국을 위해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런 인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란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인사권자가 판단하고 인사권자의 몫인 것”이라며 “제가 거기에 대해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

최이슬기자

박의장 “검찰의 집단적이고 공개적인 의견 분출은 사태 해결에 도움 안돼”

박영석 국회의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추진과 관련, “검찰의 집단적이고 공개적인 의견 분출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선출 후 첫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한 자리에서 “차체에 한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전국 검찰조직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을 예들려 비판하며 민주당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회동 말미 예상치 못한 발언에 권 원내대표가 박 의장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포착됐다.

앞서 박 의장은 여야 신입 원내대표에게 “아주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됐다”며 “권성동, 박홍근 원내대표 두 분다 중진의 경험과

경륜 또 지혜까지 갖추신 분이니까 잘 소통해서 협치의 모범을 보이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박 원내대표를 ‘해결사’라고 표현하고, 권 원내대표는 ‘핵심’이라고 부르는데, 핵심과 해결사가 만났으니 핵심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특히 “대선때문에 손실보상법을 포함한 많은 민생문제를 처리하지 못했다”며 “이번 4월 국회때 민생관련 문제를 꼭 처리해서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잘 보셨겠지만 이번 21대 국회 전반기 처음 원구성때 파동이 있었지만, 적고 큰 일에 서로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지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합의 처리했다”며 “소통과 타협 또 원만한 국회를 이뤄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유나기자

한덕수 “총리 되면 노동계와 활발하게 소통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12일 “제가 총리로 재임한다면 노동계와 굉장히 활발한 소통, 대화를 하려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노동계와 새 정부 간 관계정립을 강조했다.

“노동계도 노사 관계 국제적 경쟁”

그는 “노동계는 우리 경제의 굉장히 중요한 기둥”이라며 “이제는 사회적 약자나 노동계와 우리가 계속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우리 경제의 큰 문제 중 하나인 불평등,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계도 단순히 노사간 차원에서 대화할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노동자와 국제적인 노사관계에 있어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니까 비단 우리 노동계가 사측과 협상을 통해 생활의 보장을 받는 것도 진행이 되겠지만 세계 속에서 우리 노동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제가 총리로 재임한다면 노동계와 굉장히 활발한 소통, 대화를 하려 생각하고 있다”며 “노동부 장관이 주무장관이 되겠지만 국가 전체 운영과 관련해 노동부를 돕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총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적극 대화를 해서 노동계도 경제도 좋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배우자와 원전업체 간 1억6000만원 상당의 채권 관계에 대해 “친한 친구라 사정이 어려울 때 빌려준 것이고, 2개월 뒤면 다 완료(상환)된다”고 해명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들어가며 “(채권관계에 있는 업체가) 건설업체라기보다는 저와 배우자가 그 사업을 하는 분, 부인과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친한 친구”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 매체는 인사청문회청문회 부속서류를 근거로 한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하던 2020년 배우자 명의로 이 후보자의 60년 지기이자 에너지관련 금속소재 기술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박모씨에 1억6000만원을 빌려줬다고 보도했다.

김재환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